

# 基礎醫學의 연구여건 확립돼야

金 在 油  
(大韓醫學協會회장)

모든 과학기술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의학 분야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는 기초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의학수준을 선진외국과 견주어 볼 때, 임상의학부문에서는 장기이식을 비롯한 첨단의학기술이 선진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의

학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너무나 열악한 조건아래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우선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육성책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을 지경이고, 지성의 전당임을 자처하는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조차도 기초의학을 위한 연구시설이나 환경조성에는 거의 외면한채 걸치레만의 시설확충에는 열을 올리고 있고 연구비를 배정하는 일에도 인색하기 그지없다.

어떤 학자는 국내 기초의학자들의 연구여건이나 환경이 마치 『실탄은 주지않고 빈 총만으로 전쟁을 하라고 체근하는 형상』이라고 까지 꼬집고 있는데, 실제로 기초의학진흥을 위한 지원책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다보니 기초의학을 지망하는 사람은 자꾸만 줄어들고 심지어 국내 의과대학의 기초의학 교수요원 충원율은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한심한 상태에 놓여 있다. 가르치는 교수요원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기초의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초의학의 발전없이 어떻게 의학의 전반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의학수준이 이만큼이나마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기초의학자들의 눈물겹도록 헌신적인 연구의욕에 크게 힘입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기초의학에 종사하는 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고자 의료계 나름대로 교육책을 생각한 끝에 전국의 의사들이 스스로 매년 얼마씩 기초의학진흥기금을 모금하기로 결의하고 몇년째 이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의사들만의 힘으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물론 가계각층의 호의와 지원책이 마련 되어야만 의학발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잎과 가지가 무성하듯이 튼튼한 기초위에서 만이 학문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 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위에 놓은 연고요』라는 구절은 두고두고 되새겨야 할 성구가 아니겠는가?